

# 목포 도심 시민들 “수년째 악취 고통” 호소

### 원산·삼학동 등 창문도 못열고 에어컨 과다사용에 요금폭탄도 시장·하수처리장 주변 민원 빗발속 市 관련부서 책임 전가만

■1.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창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생활해 본 사람이 아니면 절대 이해 못해요”

목포시 원산동 한 아파트에 사는 김 모 씨의 하소연이다. 3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근 시장에서 내다버린 쓰레기 더미에서 음식물 썩는 냄새가 집 안까지 들어와 열 대야에 악취까지 더해지면서 밤잠을 설칠 정도다.

■2. 삼학동 주민 최 모 씨는 아침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악취로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집 근처에 있는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남해하수종말 처리장 때문이다. 최 씨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면 불쾌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면서 “참지 못한 일부 주민들이 서명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연일 이어진 폭염에 악취까지 겹쳐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수년째 여름철만 되면 악취에 시달려온 삼학동과 하당 일부 지역 주민들은 냄새 때문에 문을 닫고 살아야 하는 탓에 에어컨과 공기정화기 등의 사용으로 전기 누진세가 부담해야 하는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시장과 하천, 하수종말처리장 등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악취 신고와 민원도 이어지고 있다.

21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의 총량은 2만3296톤으로 매일 63.8톤이 배출됐다. 올 들어서는 5월말 기준 매일 69.1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해 하루 평균 6톤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물 쓰레기 다량배출 사업장은 재래시장 7곳을 비롯한 일반음식점 216개소, 집단 급식소 132개소 등 모두 362곳에 달했다.

목포시는 이들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자원화 시설에서 1만4139톤을 처리하고 9157톤은 민간에 위탁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입주들의 잘못된 시민의식으로 음식물 분리수거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심각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목포시의 설명이다.

또 삼학동 일대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와 다른 악취가 나고 있지만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해 환경·하수 관련 3개과가 책임 소재를 떠넘기는 등 ‘핑퐁행정’을 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한 시민은 ‘목포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통해 “수차례 건의하고 면담도 했지만 ‘장비를 교체했다. 지금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확실한 원인을 찾을 수 없다. 현장에 나가보니 냄새가 안 난다’는 말만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삼학동에 이어 하당 일부 지역에서도 이 같은 악취발생이 되풀이 되고 있지만 목포시는 뚜렷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최홍립 목포시의원은 “악취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한 뒤 공공 악취 배출 시설의 밀폐화와 하수 주치의 제도 등 ‘맞춤형 악취 관리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악취는 순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무인 악취 포집기나 악취감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잇따른 악취와 가스냄새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악취 방지법에 따르면 악취 민원 제기시 현장점검을 통해 악취 원인을 파악한 뒤 압축공기를 수거해 ‘냄새도’를 알 수 있는 희석 배수값을 구하고, 기준치(20) 이상일 경우 행정조치를, 3차례 권고조치 이후 시정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여름철 냄새가 나는 이유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며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악취 저감 방법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목포시는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에 참가해 별도의 부스를 설치하고 대양산단과 세라믹 산단 분양 홍보와 기업유치 상담을 했다.

## 대양산단 분양 국내외 홍보 분주

### 일산 박람회서 기업유치 상담

### 내달 중국 투자상담회에 참가

“한 평이라도 더...”

목포시가 대양 일반산업단지 분양을 위해 흘린 땀방울이 금(金)으로 이어가고 있다.

목포시 산업단지 정책실은 하계휴가까지 반납한 채 공략 대상 기업들과 인과가 물리는 대단위 행사를 찾아다니며 적극적인 분양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은 최근 전남도가 분양물이 저조한 목포 대양산단을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중기청에 요청하면서 산단 활성화의 불씨를 지피는 계기가 됐다.

중기청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면 입주 업체들이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정책자금 융자지원과 기업 신인도 평가 우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산단 정책실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에 참가해 별도의 부스를 설치하고 대양산단과 세라믹 산단 분양 홍보와 함께 기업유치 상담도 벌였다.

앞서 이들은 목포 항구축제 기간에도 1일 2명씩 근무하면서 축제장

을 찾은 외지 관광객 1000여명을 대상으로 입지 장점 등을 홍보했다.

21일 산단 정책실에 따르면 산단 입주가능 업종, 금융기관 대출 가능 여부, 지원시설유지 분양가격 등에 대한 문의가 주를 이뤘다.

특히 이들은 국내 홍보에만 그치지 않고 다음달 8일부터 11일까지 중국 푸젠 성 사문시에서 개최되는 국제 투자무역상담회에도 참가한다.

사문시는 목포시와 자매결연 도시로, 이번 무역상담회는 세계 100여국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다.

이를 위해 산단 정책실은 중국어판 분양홍보물과 동영상 제작하고 중국어 통역사를 배치해 세계 우수 기업들을 상대로 매칭상담을 벌일 계획이다.

전문화 목포시 산단 정책실장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동향을 파악하고 무엇보다 사문시에 거주하는 한국기업 중 유망 기업을 집중 발굴하는 것이 목표”라며 “대양 산단의 강점과 기업투자 계획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 유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양산단은 155만 ㎡ 규모로 입주 업체는 수산식품, 전기장비, 물류업, 자동차, 세라믹 등이며 분양가는 3.3㎡당 88만원 수준이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 목포시 해양정화사업 최우수 지자체 선정

목포시가 전국 기초 자치단체 오선 크린업(해양 정화 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목포시에 이어 경남 고성군과 충남 태안군이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는 광역자치단체가 지난해 해양 정화 사업을 시행한 80개 기초 지자체 중 9곳을 추천한 뒤 해수부가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2차 평가를 실시했으며, 2차 평가는 학계, 연구기관, NGO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이뤄졌다.

21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 수매사업,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섬과 해안가에 버려진 해양쓰레기 573톤을 수거 처리했다. <사진>

또 목포해수청, 수협, 관내 어촌계 등과 적극 협력해 해양환경 캠페인과 정화활동을 전개해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한 점이 호평을 받았다.

한편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내달 20일 안도에서 열리는 제16회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에서 해수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또 업무 담당자에게는 내달 23일부터 24일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한·중·일·러 국제 워크숍’에서 각국의 해양쓰레기 관리정책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 전기공사협회 전남도회, 초급기술자 양성 청년취업 앞장

### 교육비 전업인정학회 부담 류재선 전기신문 사장도 장학금 1000만원 쾌척

전남지역 전기공사업계가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해 전남 공업계 고등학교 전기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초급기술자 양성교육에 나섰다. 극심한 취업난에 전기공사 기능인력 양성과 시공업계 인력문제 해소를 위한 것으로 수천만원의 교육비는 전남전업인정학회와 류재선 전기신문 사장이 부담하기로 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남도회(회장 김정호)는 18~19일 이틀간 목포고에서 전남 지역 특성화고 전기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 전기공사 초급기술자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지난해 9월 개정된 전기공사법에 따라 전기공사 기사 자격을 갖춘 학생들은 이번 교육을 이수하면 초급기술자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목포공고와 구림공고, 해남공고 등 전남 서부권 3개 학교 전기과 재학생 8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교육은 신재생에너지 강의와 전기공사 현장, 수번 전설비, 접지공사 등 실무 위주로 진행됐다.

전남도회는 이번 교육을 통해 초급기술자격을 획득하는 학생들 중 일부를 지역 전기공사업체와 연결시켜 청년 인재 채용



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오는 10월엔 여수공고와 순천공고 전기과 학생 14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이어가 200여명의 전기공사 초급기술자들을 확보할 계획이다.

교육비와 숙박비, 수첩발급비 등 제반비용은 전남전업인정학회가 전액 장학금으로 지원하며 류재선 전기신문 사장도 장학금으로 1000만원을 기탁했다.

임영춘 전남전업인정학회 이사장은 “민간단체가 주도한 이번 전기공사 기

인력 양성이 지역 시공업계 인력난 해소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류재선 전기신문 사장은 “학생들이 전기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교육에는 김병찬 전기산업연구원 이사단장과 김광길 목포협회 회장, 3개 학교 교사들도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 내일 ‘섬의 날’ 제정 토론회...김성열 행자부차관 참석

‘섬의 날’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오는 23일 목포대 7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된다. 이날 토론회 참석차 김성열 행정자치부 차관이 목포를 방문한다. 김차관은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관람한 뒤 목포 남항과 관공선 부두를 둘러보고, 행정선을 이용 달리도를 방

문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목포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4차 도서개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반영을 요구하고, 목포권 ‘국립 섬 발전진흥원’ 건립을 건의할 계획이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http://www.hankooktea.co.kr

대한민국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감농 Set

다담 Set

우전감로

감사 Set

한국제다는 10만평의 자가농장과 60여년의 제다 각종유기능 제다

대한민국 식품 명인 선정

국제 차 품평에서 최우수상 수상

2009년 식품평에서 1등상(금상) 수상

LA외 5개국 수출중

ISO 22000 인증 획득

전 세계로 나가는 아시아나 기내에 엄선된

名人的 차만 남품

名節의 高貴한 선물은 名인이 만든 名茶를 권합니다.

식품명인지정서

제품문의 한국제다 본사 062-222-3973

차생원 본점 062-232-3973

광주 신세계점

광주 롯데점 062-221-1037

부산 차생원 051-7007~8